

상담 장면에서의 명리의 활용에 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홍성규, 곽희용, 김종우*[†], 정선용*[†]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방신경정신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신경정신과학교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신경정신과[†]

National Research Trends Regarding Use of the Four Pillars of Destiny in the Counseling Realm

Sunggyu Hong, Hui-Yong Kwak, Jong-Woo Kim*[†], Sun-Yong Chung*[†]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Neuropsychiatry, Gangdong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Received: November 8, 2020

Revised: November 27, 2020

Accepted: December 18, 2020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urrent research trends of Four Pillars of Destiny and verify its values and potential in the counselling scene, as the Four Pillars of Destiny's territory has been expanding to counselling, medical and psychiatric realm nowadays.

Methods: The studies were searched from psychotherapy to general consultation,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counseling and Four Pillars of Destiny. Twenty-one published research studies were selected for analysis. The studies were categorized into 7 groups, meta-analysis, comparison with other personality tests, user's trend analysis, utilization in job counseling, disease prediction study, utilization in treatment counseling, and use in Korean medicine.

Results: The selected studies attempted to expand Four Pillars of Destiny's usage through combination with other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Korean medicine, and personality test. Furthermore by analyzing Four Pillars of Destiny itself to extract its key elements in counseling, such as therapeutic counseling factors and occupational counseling factors.

Conclusions: At present, there are no standard use of Four Pillars of Destiny in counseling scene, for no large-scal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r completed on this subject. This current status quo leads this paper to end up just understanding the counseling factors and possibilities of Four Pillars of Destiny rather than its psychological theory and clinical effect. However, this research trend analysis will be helpful in preparing future studies investigating Four Pillars of Destiny's counseling effect, application in the counseling scene and its psychological theory. Also, further studies, including confirmation of the theory through the operational definition, prospective research, control study, statistical technique are required in order to evaluate Four Pillars of Destiny's psychological theory and its effects to verify its use in clinical scenes.

Key Words: Counseling, Four Pillars of Destiny, Personality test, Psychotherapy, Korean medicine,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Correspondence to
Sun-Yong Chung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892 Dongnam-ro,
Gangdong-gu, Seoul, Korea.
Tel: +82-2-440-7134
Fax: +82-2-440-7287
E-mail: lovepwr@khu.ac.kr

I. 서론

상담이란, 한 명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 또는 심리치료사와 한 명 이상의 환자 또는 내담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상담의 목적은 사고 장애나 정신적 고통 또는 행동 문제를 지닌 환자 또는 내담자를 도와 생활과제를 해결하고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1,2)}.

초기 심리치료 이론들은 대부분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파생되었으며 그 이후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지닌 사람들을 돕고자 많은 이론이 제안되었다. Corsini에 따르면 69개의 새롭고 혁신적인 심리치료가 있으며³⁾, 다른 연구에 의하면 현재에는 1,000개 이상이 이론이 존재할 거라 여겨진다⁴⁾. 이 중 대부분이 이론들은 지지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연구를 통해 심리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특정한 안도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심리치료자의 독창성이 잘 반영되어 있다²⁾.

한의학에서의 상담은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고 현상 자체의 이해를 추구하는 철학적 방식을 견지하였다⁵⁾. 동시에 『황제내경(黃帝內經)』을 시작으로 각각의 의서들은 유불선(儒佛仙)의 동양철학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염담허무(恬憺虛無)⁵⁾, 이도료병(以道療病)⁶⁾, 성정(性情)의 차이와 심(心)의 역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마음 수양과 끊임 없는 노력의 강조⁷⁾와 같은 의론(義論)들을 제시하였다. 이런 이론적 그리고 철학적 기반과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현재 한의학 임상장면에서는 한의학 전통적인 상담법인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療法),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療法),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암시요법(暗示療法)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8,9)} 이 이외에도 감정자유기법¹⁰⁾, 철학상담⁸⁾ 등 다양한 상담기법들이 임상장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명리는 일월오성(日月五星)·28수(宿) 등 천체의 운행을 포함한 자연의 질서와 그 질서에 상응하는 인사(人事)관계를 음양의 소식(消息)과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를 통해 해명(解明)하려는 중국과 그 주변국가(한국, 일본 등)에서 사람의 연월일시를 간지(干支)를 중심으로 그 상호 관계를 해석하여 인간 삶의 길흉과 관련된 요수·빈부·귀천·성패 등을 추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언 체계이다¹¹⁾. 과거에는 이

런 역(曆)과 점(占)을 통해 삶과 세계의 변화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일상적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상징성을 통해서 인간의 길흉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던 점복(占卜)의 시도들은 과학적 실증자료를 토대로 하고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시대착오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지만 현대에 들어서 오히려 명리를 위시한 점복은 더욱 성행하고 있으며 그 시장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고 기층문화(基層文化)라는 무의식적인 측면에서부터 일상생활 곳곳의 관습화된 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삶과 생활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12,13)}. 현재까지 진행된 명리의 선행연구는 전반적으로 명리의 이론체계, 개인의 적성과 직업, 진로에서의 보완점 등에 대한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점진적으로 범위에 미치는 영향, 환자 병증에 관한 연구, 건축과 공간디자인에 대한 연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연구 성과는 미흡하다¹⁴⁾. 그렇지만 명리는 명리심리학¹⁵⁾과 같이 정신과 영역에 활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보이고 있다.

명리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여덟 자의 간지(干支)로 나타낸 것으로 그 하나하나의 글자가 그 사람의 기(氣)와 질(質)의 흐름을 나타내며 본인을 상징하는 일간(日干)을 중심으로 나머지 간지(干支)들과 관계를 통해 인간의 전반에 대하여 해석을 시도한다¹⁶⁾. 특정한 성향들이 태어난 연월일시에 따라 각각의 자리에 배치되고 그 위치와 농도에 따라 그 특성이 발현되면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고 인간은 각 성향의 자리와 농도에 따라 세상을 읽어내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게 된다¹⁷⁾. 따라서 명리는 예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개인의 특성, 주변과의 관계 맺음,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외부세계와 어떤 맥락을 이루고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한의학에 존재하는 운기학설(運氣學說)은 명리(命理)와 마찬가지로 십간(十干), 십이지(十二支)를 활용하며 추가로 삼음삼양(三陰三陽)을 배합하여 이를 육기(六氣)로 삼아 자연과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고 기후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법칙을 파악하여 질병을 예방·치료하고자 한다¹⁸⁾. 운기학설(運氣學說)과 명리(命理)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맺고 있는 상호연계성, 유기적(有機的) 관계인 천인상응(天人相應)을 공통점으로 갖는다¹¹⁾.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명리학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운기학설은 서로 공유할 여지가 없지만, 인간관

계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질병·건강에는 모두 관심을 가진다.

명리는 인간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어 생에 대한 인간의 자유 의지를 무시한 정명론적 한계¹⁹⁾가 있고, 과학적 실증자료를 토대로 하고 합리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비과학적이라 비판이 있다³⁾. 그렇지만 많은 심리이론이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증명하지는 못했어도 심리적 불편감에 대해 특정한 안도감을 제공하는 점, 명리학이 정신과 상담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외부와의 관계 및 개인이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명리가 가지고 있는 상담적·치유적 가치 그리고 『황제내경(黃帝內經)』부터 내려오는 천인상응(天人相應)에 기반을 둔 한의학적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상담장면에서 명리의 활용 가능성 및 유용성을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명리의 최신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방법

본 연구에서는 명리의 활용이 상담 장면에만 확장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명리의 국내 최신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체계적인 방법으로 검색을 진행하였다. 사주 OR 명리를 키워드로 하여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http://www.riss.kr/>), KISS (Koreanstudies Information Service System, <http://kiss.kstudy.com/>)를 통하여 2020년 6월 15일까지 출간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학위논문은 제외하였으며 주제의 경우 RISS의 경우 철학, 역사, 사회과학, 기술과학, 종교, 언어, KISS의 경우 공학분야, 사회과학분야, 의학분야, 인문과학분야, 자연과학분야로 한정하였다. 검색결과는 연구방법, 상담에서의 이용 또는 적용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020년 6월 17까지 출간된 논문 중 키워드를 상담 AND 명리, 기한을 2016~2020으로 한정하여 다른 경로인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le.co.kr/>)를 통하여 추가적인 검색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에서 활용되고 있는 명리뿐만 아니라 각종 활용 방법에 대한 제시, 타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응용 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다. 검색되는 논문의 형태는 임상연구, 사례보고 등의 형식들도 모두 검색 및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검색된 문헌의 목록을 2명의 연구자가 공유하

며 제목과 초록을 통하여 1차 선정을 진행하였으며, 논문 전문을 확보하여 2차 선정을 진행하였다. 선정과정에서 의견 불일치는 2명의 연구자(HSG, KHY)의 상의 하에 조율되었으며, 의견이 불일치할 시에는 제3의 연구자(JSY)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였다.

III. 결과

1. 검색 결과

위와 같은 검색방법을 통하여 검색을 진행한 결과 총 257개의 논문이 검색되었고, 다른 경로인 Google Scholar를 통하여 3건의 논문이 추가로 입수되었다. 1차 선정 결과 27건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이 중 6건은 명리의 해석과 고증의 문제에 관한 논문으로 상담과 직간접적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총 21건의 연구가 본 동향 분석에 선정되었다. 종합적 메타분석, 다른 성격검사와의 비교, 사주이용자의 경향분석, 직업 상담에서의 활용, 질병예측 연구, 치료 상담에서의 활용, 한의학 응용 등의 형식으로, 연구방법과 주제로 나뉘어 분석되었다(Fig. 1).

1) 메타분석

총 1건의 메타분석²⁰⁾이 검색되었다. 2016년 11월을 기준으로 RISS에서 “명리”라는 키워드로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저서 등을 망라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검색된 총 1,886건의 문헌 중 1,083건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2차 분석을 통하여 명리의 전체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연구들은 크게 3개의 분야인 명리학 이론 및 사상연구, 명리학 활용분야, 타 분야와 명리학 결합 연구로 나뉘었으며, 저서의 경우 명리학 이론 및 사상연구가 787편(72.7%)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연구의 경우 이론 및 사상연구(137편, 48.6%), 명리학 활용분야(72편, 25.5%), 타 분야와 명리학의 결합(73편, 25.9%)으로 비교적 각 분야에 고르게 나타났다. 그중 타 분야로의 연계의 경우 명리학과 동양의학과의 결합, 상담학, 성격특성 연구, 정치 혹은 역사분야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서의 경우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명리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 자기과사용 발간하는 경우를 제시하며 서적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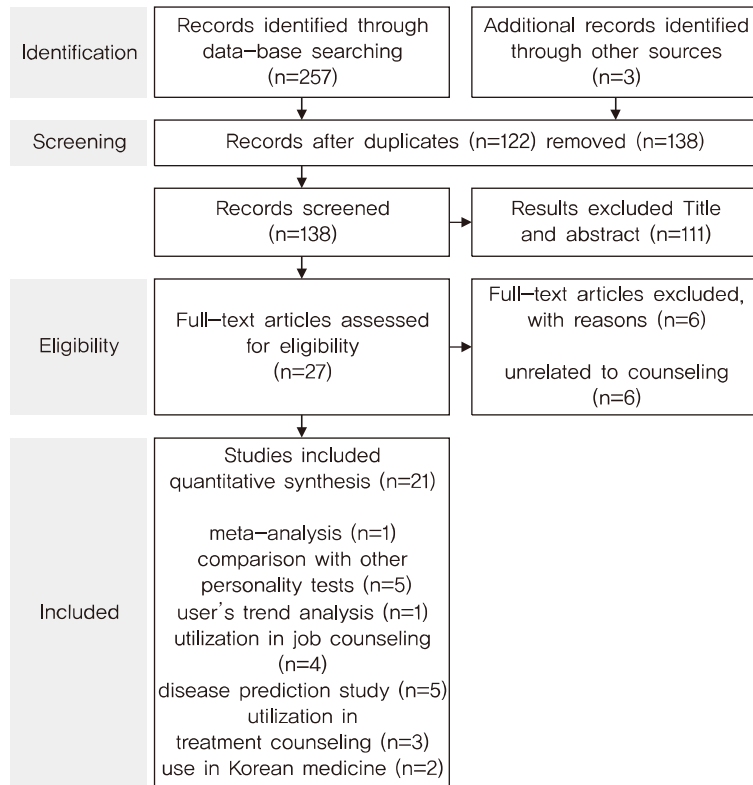


Fig. 1. Prisma flow chart.

2) 사주이용자의 경향분석

총 1건의 사주이용자의 특성을 분석하려는 연구²¹⁾가 존재하였다. 연구는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검사를 바탕으로 사주경험과 사회적 문제해결, 의존성 및 독립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Maydeu-Olivares와 D’Zurilla가 제작한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Revised)를 최이순이 우리말로 변안하여 재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으며²²⁾, 독립성/의존성 척도로는 Singelis (1994)가 개발한 척도를 성인에 맞게 수정·변경하여 사용하였다²³⁾. 분석결과 사주경험과 심리적 특성변인이 의존성(F=0.25) 및 독립성(F=1.46)과 긍정적 문제지향(F=1.74), 부정적 문제지향(F=1.08), 합리적 문제해결(F=0.87), 충동부주의 문제해결(F=0.28), 회피 문제해결(F=3.11)로 사회적 문제해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사주경험 빈도가 늘어났지만(F=37.13) 사주경험과 심리적 특성과

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다른 성격검사와의 비교

다른 성격검사와의 비교의 경우 총 5건^{14,24-27)}의 연구가 존재하였으며, 그 중 3건^{14,25,26)}의 연구는 두 검사간의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유사성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2건^{24,27)}의 연구는 실제 자료를 통하여 두 성격검사 간의 관계성을 파악한 연구였다. 1건¹⁴⁾은 DISC 행동유형, 1건²⁴⁾은 MBTI 성격유형검사, 3건²⁵⁻²⁷⁾은 에니어그램과의 상관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DISC 행동유형(DISC at a glance/DISC behave type)과 명리학의 일간(日干)과의 성격을 비교한 연구¹⁴⁾에서 DISC 행동유형의 각 행동유형과 명리의 일간(日干)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도형(Dominance)과 갑목(甲木), 경금(庚金), 사교형(Influence)과 병화(丙火), 정화(丁火), 안정형(Steadiness)과 을목(乙木), 무토(戊土), 기토(己土), 신중형(Conscientiousness)과 신금(辛金), 임수(壬水), 계수(癸水)간의 이론적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MBTI 성격유형검사와 명리의 연관성을 고찰한 연구²⁴⁾에서는 MBTI의 외향성(extro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을 중심으로 사주의 특성과 비교하고 있다. 외향성(E)의 피검자 10명과 내향성(I)의 피검자 10명의 사주를 분석하여 각 사주의 일간(日干), 월지(月支·출생월), 오행의 개수, 오행의 비율, 양(陽)·음(陰) 천간(天干)·지지(地支)의 개수와 외향성과 내향성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연구에서 오행의 개수, 오행의 비율이 외향성 및 내향성과 관련되어있다고 결론지었지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뿐 통계적 검정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명리학과 에니어그램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은 총 3건이 존재하였다. 2편의 연구^{25,26)}는 이론적 연관성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1편의 연구²⁷⁾는 실제 자료를 통하여 그 연관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유사성을 설명한 2편의 연구^{25,26)}에서는 에니어그램과 명리 모두 성격이 출생과 동시에 형성된다는 유사성을 제시하고 있다. 에니어그램은 사람을 9가지 유형인 1번 유형-개혁가, 2번 유형-조력자, 3번 유형-성취자, 4번 유형-예술가, 5번 유형-사색자, 6번 유형-충성자, 7번 유형-낙천자, 8번 유형-지도자, 9번 유형-중재자로 분류하며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지, 주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며 명리에서는 태어난 날의 일간(日干)에 따라 그 외부적 성격을 파악한다. 두 논문에서 9가지 기본성격 유형과 일간(日干)과의 관계, 성격의 역동성과 신강신약(身強身弱), 성격유형 날개와 지장간(支藏干), 방향성과 대운(大運)의 관계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명리와 사주의 연관성을 실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 연구²⁷⁾에서는 참가자 448명의 연월일시과 설문검사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격유형과 일간(日干)과의 상관관계, 절기와 성격유형과의 연관성, 십정격(十正格) 성격유형과의 연관성 및 다른 연구에서 제시된 사주와 에니어그램의 역동성, 날개 유형, 통합과 분열에 관한 연관성에 대하여 전문적인 통계분석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단순 비율로만 비교에서도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4) 치료상담에서의 활용

총 3건^{17,28,29)}의 논문이 상담장면에서 명리가 가지고 있는 치료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모든 논문이 명리의

자기 수용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역과 명리학의 치유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¹⁷⁾의 경우 동양적 사고에서는 질병을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그리고 철학적인 병까지도 포함하고 있으며 무슨 병이든지 마음이나 몸의 균형이 깨어질 때 생겨난다고 파악하였다. 태어날 때 지니게 된 일간(日干)과 나머지 일곱 자리 오행과의 관계를 가늠하여 강약을 판단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약화하는 용신(用神)을 판단하여 일간(日干)의 오행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시기가 오면 나아가 재능을 펼치고 반면에 균형이 깨어지는 시기가 오면 세상에 나아가기보다는 칩거한 채 자신을 갈고닦으면서 앞날을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는 시기와 균형에 대한 섭생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명리를 통해 주제적으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명리를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바라보는 성찰과 자각의 도구로서의 성향 이론으로 재구성하며 자신의 행동패턴과 고통 등이 어떤 성향의 영향을 받는 것인지를 해석하고, 어느 성향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병이 들었는지를 알아내고, 지금이 어떤 성향이 강화된 시기인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명리를 활용하여 명리의 자기 치유와 동양식 상담이론으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자기 치유적 해석 도구로서의 가치를 제안하며 명리의 자기 수용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명리학의 한국적 단기상담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한 논문²⁸⁾은 명리상담가 5인과의 인터뷰를 폴 리코르(Paul Ricoeur)의 해석학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상담가들은 명리학의 상담적 가치를 내담자의 일간(日干)이 처한 환경이 좋은지 혹은 좋지 않은 환경인지를 판단하고, 지금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함으로써 이를 통해 단시간 내에 핵심만을 가지고 접근하여 내담자의 저항문제를 해결하여 비용 및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단기상담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줄일수 있다고 보았다. 상담자가 일반적인 상담의 과정처럼 내담자의 감정의 문제 및 심리적 갈등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심리학적 방어기제인 저항을 줄이는 과정을 겪지 않고, 명리학적 접근 방법인 핵심 화두를 던지는 방식을 통하여 문제에 내담자를 곧바로 직면(Confrontation)시킨다. 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저항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담시간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내담자에게 자기이해와 인식을 넓혀 자신의 본질적 모습을 수용하게 만들며, 불일치되는 삶을 통찰하고 일지시키는 변화를 형성하도록 도우며,

이를 통하여 내담자는 지금까지 삶에 대한 자세나 심리적 상황들에 대해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숙명론적 삶을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자기수용적 치료의 과정을 겪는다고 보았다. 다른 한 논문²⁹⁾의 경우 한 명리학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개인이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경험하게 된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을 통한 '마음챙김'의 치료적 가치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대상자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자신에 대한 수용을 이야기하며 '맥락적 자기'를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대상자는 명리분석을 통하여 자신의 정해진 숙명적 운명을 이해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타인의 모습들을 사주 분석을 통해 이해하게 됨으로써,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의지대로 펼쳐지지 않는 숙명론적 한계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대하여 고찰한다. 저자는 이런 자신을 수용하는 인지의 변화를 ACT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 수용전념치료)적 요소로서 인터뷰 대상자의 명리학 공부를 통한 '숙명론적 한계상황의 수용'으로부터 명리학의 그 치료적 가치를 찾는다. 명리학의 '숙명적 한계상황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바라보고 고통을 일으키는 성향을 읽어 통찰 속에서 맥락적 자기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화해하는 과정은 곧 '수용'을 의미한다. 저자는 이러한 자신에 대한 '수용'은 곧 심리적 유연성이라는 치료적 의미를 갖게 한다고 보았다.

5) 한의학 응용

총 2건^{30,31)}의 논문이 명리와 한의학과의 연관성을 통한 상담 또는 치료 방식을 제시하였다. 1건의 논문³⁰⁾은 명리를 통하여 섭생법 및 직업 선택, 거주지 선택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의 얼굴의 형태를 통하여 오장육부의 대소를 추론하고 이를 통한 음양오행 체질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오행적 특성과 개인의 명리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인의 심리, 부족한 기운과 섭생법 및 직업선택, 거주지 선택을 제안한다. 하지만 오행체질이론을 제시하였으나 진단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 및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사주 또는 오행체질이론을 통하여 이전에 내담자가 있었던 사건 또는 습관의 당위성에 설명해주는 것에 그치고 있다.

한의학에서의 응용에 관한 다른 1건의 논문³¹⁾은 명리이론을 응용하여 장부와 기혈의 허실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 침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명리를 통하여 오행 중 가장 왕성한 세력을 가장 실한 장부로 판단하고 음양의 세력을 보아 기혈의 허실과 장부의 허실을 구분하여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합쳐 양에 속한 것이 많으면 육부와 기가 실한 것으로 보고 음에 속한 것이 많으면 오장과 혈이 실한 것으로 본다. 위에 나타나는 장부와 기혈의 허실과 호소하는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로 해당하는 장부의 오수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6) 직업 상담에서의 활용

총 4건³²⁻³⁵⁾의 논문이 명리의 직업 상담적 측면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1건³²⁾의 논문의 경우 시대에 따른 명리에서의 직업적성론의 발달과 그 이론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고 다른 3건³³⁻³⁵⁾의 논문은 특정 직업군에서 나타난 명리적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직업적성론의 발달을 고찰한 연구³²⁾에서는 명리학에서 직업적성론에 대한 연원과 전개과정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광박에 의해 창시되었고 당·송대에 집대성된 고법명리학에서는 타고난 본성인 오상(五常)을 기준으로 하되 육신(六神)을 참고하여 직업적성을 판단한 성격 위주의 직업적성론을 제시하였다. 북송 초 창시되었으며 남송시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사용된 자평명리학의 경우 직업선택에 오행과 오상(五常),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을 활용하였다. 격국(格局)은 성격, 용신(用神)은 흥미에 부합하는 개념으로 마찬가지로 흥미보다는 성격에 초점을 두는 직업적성론을 제시하였다. 웨이치안리(1911~1988)의 저술한 명학강의(命學講義)의 직업적성론의 경우 사회가 고도로 분화한 직업을 기준으로 새로운 직업적성을 제시하였다. 용신(用神) 오행을 기준으로 직업을 분류한 후 용신(用神)을 최우선 요소로 삼고, 격국(格局) 일간(日干)의 강약을 부수적인 요소로 삼아 직업적성을 판단하여, 이전의 직업적성론과는 다르게 본인의 흥미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여 현대의 직업관에 좀 더 적합한 직업적성론을 제시하였다.

나머지 3건³³⁻³⁵⁾의 논문의 경우 각각 연구원,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교사에 대한 직업의 명리 특성 및 실제 사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 6명의 사주를 분석한 연구³³⁾에서 그 특징으로 식신과 상관 성향의 격이나 격국(格局)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원국에서 식상의 격을 이루지 않으면 대운(大運)에서 식상의 성향을 강화시켜 식상 격국(格局)

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 모든 사례에서 재성이 원국에서 뚜렷하거나 대운(大運)에서 재성이 강화되어 식상생재격을 형성한다는 점, 화(火)가 원국에 드러나지 않고 화(火)가 암장(暗藏)되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8명의 사주를 분석한 연구³⁴⁾에서 엔터테인먼트 종사자의 특성으로 격국(格局)으로 식신·상관격과 정인·편인격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³⁵⁾에서는 교사 직업군에서 단기재직을 배제한 10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총 10명을 대상으로 십성(十星), 격국(格局), 용신(用神)을 중심으로 사주를 분석하여 교사의 적성 분석의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격국(格局)의 분포는 다양했지만 과반수가 식상격에 집중되고 있었고, 재성은 대체로 약하거나 정재 또는 정재합이 우세하였고, 관성은 대체로 약하거나 정관 또는 정관합이 우세하였고, 인성은 대체로 약하거나 정인이 우세하고, 일간은 대체로 통근(通根, 지지의 지장간에 일간과 동일한 오행이 있는 경우)하였고, 사주의 조후용신(調候用神, 사주가 조화로운 경우)이 모두 충족되어 있으며 대운(大運)의 흐름이 격국이나 용신을 파극(破剋, 용신이 약해지는 기운이 들어오는 경우)하지 않고 필요한 십성(十星)을 부조(扶助)하고 있는 공통점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이 3건의 논문 모두 후향적 사례분석 연구인 점, 대조군이 없는 단일군 연구라는 점, 그리고 그 사례가 많지 않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7) 질병예측 연구

총 5건^{36-39,42)}의 논문이 질병예측 연구에 관해서 검색되었다. 1건³⁶⁾의 논문은 명리학에서의 그 연월 및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으며, 2건^{37,38)}의 논문은 질병 예측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였으며, 2건^{39,40)}의 논문의 경우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사주를 분석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질병예측의 연원에 대하여 고찰한 논문³⁶⁾의 경우 여러 고전 이론 「연해자평」, 「삼명통회」, 「궁통보감」, 「적천수」, 「명리정중」들을 통합하여 명리를 통하여 사람의 질병 진단 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논문은 질병 예측 시스템 연구의 경우 시리즈 연구^{37,38)}로 간지(干支)가 주관하는 장부와 부위, 그것이 속한 경락과 병정의 정도, 수화의 조화 여부, 간지(干支) 오행간의 조화 여부를 통하여 질병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선천체격, 사주의

격국(格局), 용신(用神)과 대운(大運)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최종적으로 아픈 부위, 시기를 진단하여 예방법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개념적 노트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 제안된 퍼지 유행 부호 그래프인 Fuzzy Cognitive Map을 통하여 인과 관계 지식 베이스를 작성하여 명리의 불확실한 다인적 인과관계를 추론하여 이를 통해 명리를 통한 진단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4대 중증질환자의 정서적 스트레스와 명리학적 선천성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³⁹⁾는 요양시설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 1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단일군 전·후 표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한국판 사건 충격도(Impact of Event Scale-Revised Korean version)⁴⁰⁾문항과 정서적 탈진정도 측정 지표로 Maslach (1981)의 Maslach Burnout Inventory⁴¹⁾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환자의 사주와 질환이 연관성에서 목과 금, 수는 '뇌혈관질환'이 각각 78.1%, 45.8%로 가장 높았고, 화는 '심장질환'이 44.0%로 가장 높았으며, 토는 '기타'가 60.0%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chi^2=94.538, p<.001$). 연구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명리학적 선천성 질환과의 4대 중증질환과의 연관성을 기반으로 명리학적 선천성을 통하여 사전에 질환을 예측하고 파악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여성생식기암(癌)의 명리학적 요인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⁴²⁾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환자 30인의 연월일시와 발병의 명리학적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水)의 불급이 여성생식기암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일간(日干)의 음양과 귀문관살의 유무, 대운(大運)과 세운(歲運)에서 수(水)에 합(合)·형(刑)·충(沖)이 집중되는 시기, 지장간(支藏干)의 수(水)가 타격을 받는 대운(大運)과 세운(歲運)의 시기를 여성생식기암의 위험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후향적 연구, 통계를 활용하지 않은 점 그리고 단일군 연구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IV. 고찰

현재 임상에서 정신분석, 실존주의 심리치료, 인간중심 심리치료, 행동 심리치료, 인지 심리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

료와 상담이론들이 내담자를 위하여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으며²⁾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도 전통적인 한의학 상담법인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療法), 이정변기요법(移精變氣療法),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암시요법(暗示療法) 등 또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많은 이론과 기법들이 계속해서 개발 및 활용되고 있다^{8,9)}.

점복은 흑세무민, 비과학적이란 이유로 배척받았고 기층문화(基層文化)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다, 대중일간지에 운세가 게재되기 시작하면서 명리를 포함한 점복은 대중문화로 편입하게 되었다. IT 기술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기술발전이 따라 익명성, 쌍방향 상호작용 등이 향상됨에 따라 명리를 포함한 점복문화는 비약적으로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¹²⁾. 그러한 경제적 성장과 함께 그에 관련한 연구들도 점차 증가하여 현재 전반적으로 명리의 이론체계, 개인의 적성과 직업, 진로에서 보완점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범죄에 미치는 영향, 환자 병증에 관한 연구, 건축과 공간디자인 연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¹⁴⁾ 명리심리학¹⁵⁾과 같이 정신과적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다양한 연구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명리학의 타 분야로의 확산과 정신과적 영역까지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에 따라 명리에서의 상담적 요소에 관한 현재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본 동향 분석에서는 연구의 방식 또는 그 적용 영역을 일곱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첫 번째로는 이전에 진행된 메타분석에 대하여 논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연구들은 크게 명리학 이론 및 사상연구, 명리학 활용분야, 타 분야와 명리학 결합 연구로 나뉘었으며 어느 한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각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사주이용자의 경향분석에 대하여 주목했다. 명리를 활용하는 사용자의 취약성에 관한 연구로 사주를 이용하는 내담자들이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의존성 및 독립성을 일반인과 비교한 연구였다. 개정판 사회적 문제해결 척도와 Singelis가 개발한 독립성, 의존성 척도를 활용하여 사주이용자들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사주이용자와 일반인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주이용자가 일반인에 비해 특이적인 취약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성격검사와의 비교에 대하여 살펴보았

다. 다른 성격검사로는 DISC 행동유형, MBTI 성격유형검사, 에니어그램이 존재하였으며 실제 사례로 두 성격이론 간의 유사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유사성은 존재하였고 저자들은 상관성을 확인했다고 하였으나 연구는 후향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절한 통계적 검정을 거치지 않았다. 에니어그램 연구의 경우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해본 결과 성격과 연월일시간의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다.

네 번째로 명리의 상담 장면에서의 치유적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모든 논문에서 각각 '자기 자신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바라보는 성과와 자각의 도구', '스스로를 성찰하는 자기 치유적 해석 도구', '자기 이해와 인식을 넓혀 자신의 본질적 모습을 수용하게 만들고, 불일치되는 삶을 통찰하며 일치시켜 이를 통한 삶에 대한 자세나 심리적 상황들에 대해 공감적 이해', '자신에 대한 수용', '맥락적 자기를 인정하게 된 과정'과 같이 명리의 숙명론적 한계 상황들을 받아들임에 대하여 관찰하였고 자기 수용적 가치를 논하며 명리가 가지고 있는 ACT적 요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 이외에도 명리가 가지고 있는 균형, 시기 그리고 직면(Confrontation)에 대하여 논하였다.

다섯 번째로, 명리 이론을 한의학에 응용한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두 논문 모두 명리를 통하여 환자의 선천적인 체질을 판단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하여 장상학과 유사한 오행이론 또는 장부의 기혈허약 이론과 배합하여 섭생법, 치료법, 질환에 대한 설명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렇지만 두 논문 모두 이론적 근거 및 활용방안만 제시하였지 실제 적용에 대하여 논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로 직업 상담에서의 활용에 관한 논문을 논하였다. 한 개의 논문은 명리학에서의 직업이론의 발달과정과 그 근거에 대하여 논하였고, 나머지 3개의 논문은 모두 후향적 분석 연구로 연구자, 엔터테인먼트 종사자, 교사와 같이 이미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사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주에서 공통적인 요인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후향적 연구로 그 신뢰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일곱 번째로 질병예측 연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질병예측의 연원에 관하여 고찰한 연구, 예측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질병의 명리적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가 존재하였다. 그 연원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직업연구와 마찬가지로 고전을 근거로 하여 명리를

통하여 질병을 예측하기 위한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시스템 개발의 경우 명리에서 추출할 변수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출된 요인들을 결합하여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명리적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의 경우 4대 중증질환자, 여성생식기암(癌)의 명리적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후향적 연구였다. 각 연구에서 환자의 사주에서 공통점이 나타났지만, 직업이론과 마찬가지로 통계학적 검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후향적 연구라는 한계점을 지닌다.

살펴본 바와 같이 명리학을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또는 활용하기 위해 그 근거를 찾기 위한 여러 연구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많은 연구가 민속학적으로 점복문화의 실태 문제, 점복이론체계 구축의 문제, 점복이론의 연원 및 해석과 적용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많은 서적이 학술적 연구보다는 명리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 자기과시용으로 출간하는 경우가 많아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²⁰⁾.

명리 이론이 명확하게 정립 및 정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론의 불분명함, 지나치게 많은 변격이론,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관점 차이는 명리의 사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¹⁷⁾. 태어난 연월일시가 삶 전반을 결정한다는 명리의 대전제는 한 연구²⁸⁾가 보여주듯이 실제 설문 검사를 기본으로 한 다른 성격검사와 연월일시에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과 만나 그 기반이 흔들리게 되며, 더 나아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흘러간다는 정명론적인 세계관인 숙명론이라는 철학적 문제와도 맞닥뜨리게 된다. 로고테라피를 제창한 빅터 프랭클의 경우 숙명론 자체가 이미 신경증적인 증상이며 환자들은 자신의 콤플렉스와 성격에 대하여 변명하고 정당화하려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어⁴³⁾ 명리학의 이런 숙명론적 전제는 상담에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회현상으로 실재하는 명리 그 자체는 운명론과 허무주의에의 몰입, 사회적 불안조성, 비용의 낭비 등과 같은 역기능적인 측면들도 지닌다⁴⁴⁾.

그렇지만 사주이용자의 경향분석 연구에서 보여주듯이 명리를 활용하는 사용자와 일반인을 비교하였을 때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독립성, 의존성 영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의 활용에 안전할 것으로 보이며 환자에 대해 있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명리의

이러한 숙명론적인 전제는 ACT의 요소로 작용하여 심리적 경험을 통제, 제거 혹은 회피하려는 내담자의 비효과적 전략을 떨쳐 버리고, 아픈 정서나 감각 혹은 경직된 사고가 나타날 때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명리는 내담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가치(의미 있는 삶의 방향)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가치 탐색과 일치하는 다양한 행동을 취하는 법을 배우게 됨으로써 내담자의 성장을 도울 요소를 가지고 있다²⁾. 명리의 다른 요소인 직면(Confrontation)과 직접적으로 답을 주는 방식의 상담방식은 비용과 상담시간을 감소 시킴으로써 단기상담으로서의 장점이 있다. 명리는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나 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삶의 통찰보다는 문제해결을 원하는 경향이 강하며⁴⁵⁾ 직접적인 문제해결 상담을 선호하는 동양권의 경향성⁴⁶⁾을 볼 때 단기 상담에서 그 효용에 관해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환자가 장기 상담 필요하거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 또는 외상(trauma)을 가지고 있다면 명리가 가지고 이러한 특성들은 환자가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며 무력감에 빠지거나, 모든 문제를 자신이 태어난 날이나 부모 또는 타인과 같은 외부요인의 탓으로 돌려 자신의 책임을 흐리게 할 소지가 있다⁴⁴⁾. 이러한 점을 볼 때 명리는 현재 상태에 납득하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또는 도움마저 거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하고 및 그 효과요소를 추출하여 상담장면에 맞춰 변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향후 명리학에 기반한 상담의 내담자에 대한 효과와 실제 상담 장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추가적인 체계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에서 종합하였듯, 명리학의 전제에 관한 문제인 숙명론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리학의 오행 균형론과 오행 생극제화(生克制化)를 기반으로 한 관계론, 맥락적 자기 이해, 직면(Confrontation)과 같은 상담기법을 상담장면에 적용하고 그 안전성에 대해 평가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의학에서 기본 이론인 자연계가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천인상응(天人相應), 그리고 인체 내부의 음양오행과 장부 기혈의 상호 관계에 따른 생리적 병리적 역동을 진료에 응용하는 것에 더하여, 한방신경정신과 임상장면에서 인간과 인간사이의 역동적 상호 관계 측면에 대한 정보원으로서

의 명리적 가치를 연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V. 결론

1. 현재 명리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명리학 이론 및 사상연구, 명리학 활용분야, 타 분야와 명리학 결합 연구로 나뉜다.

2. 상담과 연관된 명리의 영역은 크게 메타분석, 다른 성격검사와의 비교, 이용자의 경향분석, 직업 상담에서의 활용, 질병예측 연구, 치료 상담에서의 활용, 한의학 응용으로 분류되었다.

3. 명리 이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이론이 불분명하며, 사용자,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상담에 활용 및 연구를 위해서는 명리에 대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명리를 상담 장면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환자 적용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5. 상담에서 명리의 치유적 가치는 숙명론적 한계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통한 ACT적 요소를 가진다.

6. 상담에서 명리를 활용 시 명리가 가지는 '직면(Confrontation)'을 통하여 저항의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상담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가진다.

7. 명리는 단기 상담에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지만 장기 상담에 활용 시 그 안전성에 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8. 명리가 가지고 있는 상담의 순수한 치료적 요소 이외에도 직업 상담, 질병예측, 한의학 응용 등에 활용 될 수 있어 내담자와의 상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1. Lee JH. Introduction to Counseling Psychology. Seoul: Pakyoungsa. 1989.728.
2. Sharf R.S. Theories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Concepts and cases. Boston:Cengage Learning. 2015. 5-6, 683-6.
3. Corsini R.J. Handbook of innovative therapy. Canada: John Wiley & Sons Inc. 2001.vii-ix.
4. Petrik AM, Kazantzis N, Hofmann SG. Distinguishing integrative from eclectic practice in cognitive behavioral therapies. Psychotherapy. 2013;50(3):392.
5. Hong WS. The Yellow Emperor's classic of medicine. Seoul:Institute of Traditional Culture. 2012.549.
6. Heo J. Donguibogam. Academic Literature Laboratory of Eastern medicine(Translated). Seoul:Bubin publishes. 2017.2604.
7. Departme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of Nationwid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Seoul:Jipmoondang. 2011.758
8. Kim JW, Chung SY, Kwak HY. Philosophical Counseling in the Clinical Field of Korean Medicine: Application and Case Analysis.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9; 30(3):119-28.
9. Kim JY, Jeong SY, Kho YT, Choi JS. Analysis of Medical Records of Korean Medicine based Psychotherapy.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6;27(2): 43-55.
10. Kim SY, Yin CS, Choi IW, Kim JW. Psychotherapy - Review of Researches on Emotional Freedom Technique(EFT).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3;24: 89-100.
11. Kim BM, Kim MT. Study on Correspondence/Contrast Relation in Oun yukgi Theory of Yellow Emperor's Inner Canon and Myeongli Sc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9;10(4):367-80.
12. Hwang KO.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Industrialization on Korean Divination Bliss - Focusing on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on-Buddhist Thought & Religious Culture. 2017;73:475-509.
13. Jeong SA. The Crisis of Everyday life and The Meaning of the Fortune Industry. Korea Association Of Cultural Economics. 2011;14(1):211-30.
14. Kim NW.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 Behavior Types and the Character Types in Saju Myeongri.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8;8(1): 327-42.
15. Yang CS. Myungri Psychology: When Living Isn't Like My Heart. dasanbooks, 2020.
16. Kim HM. Is the four pillars of destiny a superstition or a science?. The Togyeh Hak Nonchong. 2015;25:215
17. Shim GD. General Edition : A Study on the Healing Features of the 『I-Ching』 and the Myung-Li-Hak -Based on clinical experiences. Youngsan Journal of East Asian Cultural Studies. 2011;8:243-69.
18. Choi WJ. ORIGINAL ARTICLE : A Study on the Three Yin and Three Yang, and Six Qi: Based on the Theory of "Yun Qi" and Meteorological Perspective. Korean Journal of Acupuncture. 2014;31(3):117-24.
19. Kim SD. General Edition: Scientific Limit and Philosophical Turn of Myeongri.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8;21, 9(2):65-78.
20. Hwang KO. A Meta-Analytical Study of Korean Ming Li: Focusing on Research Trend by Depth-Analysis of Individual Articles.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2017;40(1):73-103.
21. Kim MR, Baek Y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aju

- Experiences, Social Problem-Solving, Reliance and Independence. *The Korean East West Mind Science Association*. 2010;13(2):33-45.
22. Choi IS.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ocial Problem Solving Inventory - Revised (SPSI - 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2; 21(2):413-28.
 23. Singelis TM.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994;20(5):580-91.
 24. Ri NH, Kim MT. 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BTI and Saju-Myeongli -Focusing on Extroversion and Introvers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8;21, 9(3):729-40.
 25. Jeong JB.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types of the Sajumyeongrihak and Enneagram personality types: Day Focused.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2013;10(2):165-91.
 26. Choi YT, Kim BY, Yang CJ, Song SH. Personality typification of Sipsin in Saju-Myungrihak: Focusing on the Korea Enneagram Personality Type Theory.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2018;15(2):79-94.
 27. Jeong JB.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personality types of the Sajumyeongrihak and Enneagram personality types : birth-year, month, day, time-compare.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2019;16(2):75-102.
 28. Ha EH, Kim SB.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Short-term Counseling in Korea by Utilizing the Experiences of Meongri-saju Counselors. *Culture and Convergence*. 2019;41(1):849-86.
 29. Eun-Hee, Ha, Sung-Bong, Kim. Mindfulness Therapy Meaning on 'Acceptance of the Fatalistic Limit Situation' through the Study of Myeongriha. *Culture and Convergence*. 2019;41(2):1255-86.
 30. Jang DS, Shin MS, Kim HS, Choi HS. Analysis of Personal Character and Health by Birth date and Constitution, Korean Society for Emotion&Sensibility. 2002;118-26.
 31. Jeong CH. Study on the Medicine-Changes Three Point Acupunctur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6;19(4):193-201.
 32. Joo MK. A Study on the Vocational Aptitude Theory of Myeongli. *Dong Bang Hag*. 2019;40:209-36.
 33. Kim NJ, Kim M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Researchers in Myeongli Science -Focused on ○○R&D Engine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19;21, 10(1):1067-80.
 34. Kim HS, Kim MT. Analysis on Myeongli Characteristics of Entertainer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020;11(1):1065-78.
 35. Kim, TS, Kim, MT. A Study on Teacher's Vocational Aptitude in the Viewpoint of Myeongli Sci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ulture and Convergence*. 2020;42:707-36.
 36. Ryu SO.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Prognosis by the Arts of Divin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2008;14(2):21-46.
 37. Park KS, Kim JW, Park MO. A Study on the Design of a Disease Prediction System by FCM and Neural Network-A 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a Saju Diagnosis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2)-. *Proceedings of the Korean Jungshin Science Symposium*. 1997;7:20-31.
 38. Park KS, Park MY. Yongshin Selection Algorithm Using Neural Network-Preliminary Study for Development of Saju Diagnosis System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1)-. *Proceedings of the Korean Jungshin Science Symposium*. 1996;5:153-65.
 39. Kim IS, Cho SJ. Study on the mental stress of the invalids with the four most common chronic illnesses and their congenital diseases in light of the four pillars of destiny – centering on the elderly in Seoul nursing hom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8):3715-23.
 40. Eun HJ, Kwon, TW, Lee SM, Kim TH, Choi MR, Cho SJ.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2005;44(3):303-10.
 41. Iwanicki EF, Schwab RL. A cross validation study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1981;41(4):1167-74.
 42. Lee JS. Illustrative Consideration on Factors of Female Genital Cancer Based on Myeongrihak. *Culture and Convergence*. 2019;10(6):1153-68.
 43. Frankl VE. *Psychotherapie für den Alltag*. Gyeonggi-do: chungabooks. 2008.48.
 44. Jang SS. The Relationship of Shamanism and Counseling: On the Basis of Fortune-Telling.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5;8:735-49.
 45. Berg IK, Jaya A. DIFFERENT AND SAME: FAMILY THERAPY WITH ASIAN-AMERICAN FAIL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993;19(1):31-8.
 46. Kim BS, Li LC, Liang TH. Effects of Asian American client adherence to Asian cultural values, session goal, and counselor emphasis of client expression on career counseling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02; 49(3):342.